

자유무역의 역사와 농업

무역자유화와 외환자유화는 동전양면과 같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우리나라 경제가 IMF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IMF와 같은 국제기관의 간섭은 한마디로 무역과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한층 촉진 시키게 된다. IMF는 우리나라 무역을 자유화시킨 GATT와 표리관계를 가진 국제기관이다. GATT가 국제간의 상품거래, 즉 무역을 자유롭게 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기구라면 IMF는 외환이나 자본의 국가관리를 배제하고 이들의 국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두 기구 모두 <자유화>라고 하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의 자유화와 외환의 자유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다.

자유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장재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이면에서 자금이 잘 흘러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환의 자유화는 국제적 거래를 촉진시키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간섭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사적으로 보면 18세기 후반 자유무역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체제라고 생각하

여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나라는 영국이다. 당시 영국은 지구상의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고 또 산업혁명의 완성을 통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경제적 이익위해 경쟁력산업 교역 필요

아담스미스(A. Smith)는 국부론을 통해 그때



까지의 중상주의(重商主義)를 강하게 비판하고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무역의 자유화를 주장했다. 중상주의는 무역수지를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던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였다. 아담스미스는 이러한 보호무역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리카아도(D.Ricardo)는 그의 역저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를 통해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이다. 비교생산비설은 모든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게 되면 양국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리카아도는 국제적 분업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분업에 기초한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에관계 상이한 세력들의 결과인 이데올로기

그러나 자유무역은 근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국가들에게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해 주는 사상도 자국 경제의 최대성장을 보장해 주는 사상도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이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조건하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였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자유무역을 주장해 왔고, 농업의 경우에도 농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한 나라는 예외없이 농산물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해 왔다. 결국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이나 하는 한 나라의 그때 그때의 정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발언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

던 이데올로기였다.

예를들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발언권이 강하게 되면 자유무역을 취했고 반대로 보호무역의 주장이 강하게 되면 보호무역을 취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주장해 왔던 국가들은 한결같이 특정 산업부문에서 수출 경쟁력이 있었던 나라들이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1861년부터 65년까지 계속되었던 미국의 남북전쟁(南北戰爭)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남부지역 사람들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북부지역 사람들의 싸움이었다. 당시 남부는 목화와 담배가 주작목이었고 이 같은 특산물은 막강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면직 공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수출경쟁력이 약했다. 따라서 남부지역에서는 자유무역을 강하게 주장했고 북부지역에서는 보호무역을 주장했던 것이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815년 해외로부터의 곡물수입을 금지하는 곡물법(corn law)을 둘러싸고 지주와 산업자본가들의 극심한 대립이 있었다. 곡물수입으로 곡물가격의 하락을 우려하는 지주들은 곡물의 수입을 절대 반대했으나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의 대량생산에 성공한 산업자본가들은 값싼 공산품을 해외에 내다 팔아야 했다.

이와같은 대립은 결국 의회를 다수 장악하고 있던 지주들의 승리로 끝남으로서 의회에서는 곡물법이 제정되었고 이어 영국은 보호무역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1846년 곡물법을 폐기시킴으로서 영국은 다시 자유무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영국은 점점 농업을 국내에서 상실하게 되었고 식량을 주로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세기초 독일의 역사학과 경제학자 리스트(F.Rist)는 아담스미스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은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유효하지만 독일과 같은 후진국에서는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호무역을 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꾀할 수 없고 영국과 같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의 국내사정도 미국의 경우와 비슷했다. 당시 독일은 곡물생산이 비교적 풍부하여 곡물수출을 해왔던 동부지역에서는 자유무역을 역시 주장했다. 당시 동부지역의 대지주들은 Junker라고 하는 귀족계급이었는데 이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리스트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결국 리스트는 이러한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독일은 자유무역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자유무역의 사상은 어느 국가나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농업과 공업간의 대립의 역사였던 것이다.

자연조건 격차 극복위한 기술개발이 유일 대안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은 자유무역에 견디어 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자연적·지리적 조건이 서구에 비해 너무나도 불리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너무나도 좁다. 더구나 좁은 국토는 산지가 많고 경지가 적다. 산지가 전체국토 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그리고 농경지는 20%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은 산지가 적고 농경지가 많다. 영국은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

이 전체 국토의 73%를 넘는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국토의 절반 이상이 농경지다.

설령 이들 나라의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와 같다고 하더라도 경지면적은 2/3배 더 큰 나라들이다. 미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경지율도 50%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 면적도 절대적으로 넓다.

하천도 다르다. 농업에는 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천의 흐름도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부지역에서 태백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있는 전형적인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강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은 급류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강바닥은 다시 마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강수량이 많아도 가뭄 걱정을 하는 나라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하천은 그 흐름이 다르다. 급류가 아니고 유유히 흐르는 한쪽의 그림이다. 독일의 라인강이 그렇고 미국의 콜로라도강도 그렇다. 이들 하천은 비가 많은 지역에서 발원하여 수천킬로가 넘는 넓은 대륙을 흐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까지도 그곳을 통과하며 물을 공급해 준다. 급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백수천km를 흐르며 넓은 농업지대를 적셔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둘러싼 자연조건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격단의 차가 있다.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자연조건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일 것이다. 자유무역하에서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행정당국과 관련기관들은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약정보**